

사설

성보문화재 보호대책

사찰소장 성보문화재(聖寶文化財)의 보호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엇그제 또다시 순천 선암사에 문화재 절도범이 침입해 탱화를 절취해 가는 등 금년에 일어난 불교문화재 도난사건만 해도 벌써 5건에 이른다. 특히 선암사의 경우는 3월에만 두 차례의 탱화절취사건이 발생해 불자들을 아연실색케 하고 있다.

사찰소장 문화재가 이토록 수난을 당하는 것은 성보문화재에 대한 빛나긴 인식 때문이다. 문화재 절취범이나 밀매자들은 불상이나 불화를 종교적 귀의와 예배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저 현금가치 높은 보물로만 여긴다. 호법신장도 두려워하지 않는 절도범들에 의해 훼손되고 절취된 사찰소장문화재는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따지고 보면 국내외의 박물관이나 개인소장 불교문화재는 하나같이 전문도둑범들이 전국의 사찰에서 훔쳐낸 것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성보문화재가 도난 당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상처를 입는 사람들은 불자들이다. 지극한 종교적 귀의로 예배하던 탱과 불상과 경전과 탱화가 무참하게 절취됐을 때 느끼는 참담함은 이루 형언키 어렵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수난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불교문화재를 보호 관리하는 수준은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다. 성보를 소장하고 있는 사찰이 깊은 산중에 있는 데다가 성보문화재의 특성상 공개된 장소에 봉안하다보니 절도범들은 마음껏 사찰을 헤집고 다닌다. 금년에 일어난 굽적한 사건만 해도 송광사 조사전 진영 절취사건을 비롯해 기림사 불상훼손 복장유물 도난사건 등 수십 건이 넘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교계와 관계 당국이 공동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찾아낸 방법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사찰 내에 성보전(聖寶殿)을 지어 성보를 보호하는 방법이다. 성보전은 사찰 내에 위치함으로써 예배도 하고 박물관처럼 관리도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이미 송광사 등 8개 사찰이 성보전을 지었고 다른 사찰도 올해중에 6개를 더 지을 계획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작은 사찰은 이마저 어려운 형편이다. 여기에는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절실하다.

또 한가지는 문화재사범 전담수사반의 설치 문제다. 문화재 사범들은 워낙 전문적이고 은밀한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한 전담수사반 운용이 필수적이다. 최근 검찰이 개가를 올린 1백억원대 문화재 도굴 밀매범들의 검거는 지속적인 수사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들을 검거하지 못했으면 경주 기림사 대적광전 석가여래 복장유물을 비롯해 순천 선암사의 후불탱화 등 수십 점의 불교문화재는 영원히 찾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관계당국은 문화재 관리국의 문화재사범을 수사할 수 있는 사법권을 부여하는 방법을 포함해 검찰내의 전담반 구성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이와 함께 불교계의 보다 적극적인 관리대책도 중요하다. 아직까지도 종단은 지정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자료정리와 정확한 통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사진자료나 상세한 기록부가 없으니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생길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것이 고작이다. 예산타령만으로 성보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성보문화재의 보호관리는 우선 불교계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일선 사찰만 문책하려 말고 종단차원의 보호관리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사찰을 인생상담소로”

조계종 포교원, 4월중 상담교육협 구성

각 사찰·포교당이 친근한 인생상담소 역할을 하게 됐다. 조계종 포교원은 사찰의 수행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상담포교사, 교사 등 양성형 상담전문가를 활용 지역사회의 수행상담 역할을 강화할 전망이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연)은 19일 회의실에서 불교상담교육 관계자 간담회를 열고 (가)불교상담교육협의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포교원은 이날중에 조계사 노인선원 불광사 수원포교당 등 상담실을 개설하고 있는 사찰과 자비전화의 파라미타 교사불자연합회 부산자비회 등 상담관련기관 대표자 연담을 갖고 4월중에 협의회를 발족시킬 예정이다.

상담관련 제반 교육의 공동실시, 상담원 상호교류 및 연수프

로그램 실시, 불교상담이론 정립을 위한 세미나 개최 및 상담현황 발표회 등 불교상담분야 발전을 위한 제반활동에 나설 불교상담교육협의회는 최근 몇 년간 불교계에 전문성 있는 상담실 및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됐다.

교계 교육기관 중 상담관련학과가 전무한 실정에서 불교상담이론 정립이 시급하고 개별적 교육 및 상담실 운영의 낭비적 요소를 방지, 우수한 불교 상담인력을 개발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특히 엄숙한 사찰의 이미지를 탈피해 신도 및 일반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상담기법을 개발해 포교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이 주목적이다.

포교원이 이 협의회를 구성하려는 배경에는 정부가 추진중인

사회단체 상담교육기관 선정에 대비 종단차원의 공신력있는 상담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의도도 담겨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타종교에 우선권을 빼앗길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자비전화 신회권 국장은 “포교 자체가 상담이라는 인이 한 생각에서 벗어나 비불자에게도 적용되는 뛰어난 불교상담이론을 정리·개발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교사불자연합회(회장 임원숙)는 20일 서울 수송동 사무실에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진로지도 관련 상담전화(02-720-0218)를 개통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교계인사 청와대 초청 김대통령 발언요지

“불교가르침 인류의 공동자산”

불자는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불교에 관심이 많았다. 불교는 자기롭고 관대한 평화의 종교이다.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이라는 외침은 불교의 인권선언이다. 불교의 보시공덕은 오늘날의 사회보장·사회정의와 상통한다. 만물 실유불성(萬物悉有佛性)은 자연과 인간의 평등관을 밝힌 것이다. 환경사상과 일맥상통한다. 위대하고 탁월한 사상이다.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건, 그렇지 않건 불교의 가르침은 인류의 공동자산이다.

한국의 불교는 두 가지 특색을 지니고 있다. 당나라에서 수입됐으나 해동불교로 재창조됐다. 또 하나는 호국불교

의 전통이다. 조선시대 불교 박해에도 불구하고 호법전통을 이어온 것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인이면 누구나 불교의 가르침과 전통을 기리지 않는 사람이 없다. 나는 불교의 친구이다. 항상 존경하고 협력하겠다.

불교문화는 한국문화의 골격이자 문화유산이며 관광자원이다. 98년에 37억불의 관광수익을 냈는데, 불교의 문화유산 덕택이다.

불교계가 지역감정 해소에 앞장서주길 당부한다. 지역감정은 30년 묵은 구습이며, 제2 천성화될 정도로 심각하다. 불교계가 이 업보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주길 거듭 당부드린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정화회의관련 의원 7명 사표수리

사미니승가대 증설·문화재 지적소유권 확보 제안

조계종 139회 총회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법등)는 22일 139회 임시중앙총회(결산총회)를 개최하고 상임분과위원회별로 집행부 결산검사와 업무보고, 질의를 벌였다.

총무분과위(위원장 영담)는 결산검사와 보고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사찰의 이축 증축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법 시행세칙과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대정부 활동에 나서라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또 종무원의 자격 심사 강화를 요청했다.

교육분과위(위원장 지하)는 승가대학이 6월까지 정원(30명)을 채우지 못해 인가 취소될 지경에 있다며 대책 마련을 교육원에 촉구했다. 또 사미니 승가대학의 시설이 부족해 매년 60명의 탈락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미니 교육기관 증설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포교분과위(위원장 지홍)는 중앙신도회 관리 업무가 포교원과 총무부로 이원화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업무 일원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회분과위(위원장 여연)는 또 불교문화재에 대해 종단이 지적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호법분과위(위원장 대원)는 멸빈자들의 도제에 대한 관리 방안 강구, 해종특위 임무지원으로 종단원 일반사건 처리의 재개를 호법부에 촉구했다.

해종특위(위원장 범종)는 활동보고를 통해 23일까지 초심호계원 심판 결과 멸빈 11명, 제적 14명, 공권정지 57명 등 모두 82명을 징계했다고 밝혔다.

중앙총회는 작년 조계종사태 당시 정화회의에 관련된 성우탄우 종광 진구 훈훈 종은 인행 스님 등 총회의원 7명이 제출한 사표를 찬성 33표, 반대 23표, 무효 1표로 수리했다. 해종특위는 7명의 스님에 대해서는 징계 회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총회는 24일 휴회를 선언하고, 회기를 31일까지 연장해 29일 속개했다. 정성운 기자

현호·현근스님 등 6명

호계원에 재심청구

월탄·성문스님 멸빈 확정

17차 초심호계원 심판(2월 23일)에서 멸빈의 징계를 받은 현호, 현근, 현소, 법일, 정우, 원

학스님 등 6명이 22~24일 사이 재심청구서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월탄, 성문스님은 재심청구서 제출시한인 24일까지 재심청구서를 하지 않아 자동적으로 멸빈의 징계가 확정됐다. 재심호계원(위원장 월서)은 4월 1일부터 심리 및 심판을 시작한다. 정성운 기자



“초발심으로...”

조계종은 출가절인 25일 오전 11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범종단 초발심회복운동 선포식을 병행하고 자정과 개역의 역량을 강화 발전시키고 이 타당에 적극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선포식은 합회 및 선포문 낭독, 법어, 발원문, 108배 참회정진, 실천지침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선포식 후 고산 총무원장과 정연 포교원장 등은 우정극도로 나가 지나는 차량과 시민들에게 ‘초발심으로!’ 스티커를 나눠줬다. 고영배 기자(ybgo@buddhapia.com)

“기초선원 정원제 운영 필요”

조계종 교육원 간담회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은 20일 중앙총회 교육분과위원회(위원장 지하)와 공동주최로 기초선원 운영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타 기본교육기관에 비해 기초선원은 정원 규정이 없어 예산지출과 관리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 정원을 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현재 122명이 정지중인 동화사 기초선원이 수용능력을 초과하고 있어, 백담사나 마곡사 등지로 분산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외에 기초선원측은 선원의 특성상 정원을 정하는 것은 무리라며, 동화사를 기초선원 중심도량으로 정한만큼 정원에 새 건물을 증축해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종단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예비승인 사미승들이 강원교육을 받지 않은채 무조건 선원으로 들어가는데 대한 문제도 지적돼 기본교육기관 재정립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이밖에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미니 기초선원 설립, 선원 및 안거선만자 집계 필요성 등도 지적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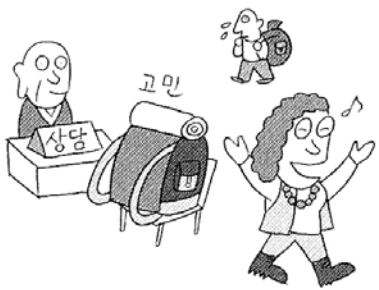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현대만평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플러그하세요

50여년 불사기념 법회와 만일기도 회향

대둔산 태고사

는 신라때 원효대사께서 터를 잡고 터가 하도 좋아서 가사 장삼을 수하시고 3일 동안 춤을 추시면서 “세세생생 도인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태고사는 고려 말 태고 보우국사께서 중창하시고 삼창은 이조 중엽 진묵대사께서 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6·25 동란으로 인하여 전소당한 것을 제가 주지 임명을 맡아서 태고사 성지도량을 수도도량·기도도량 양 처소로 살리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사를 해온 지가 어언 50여 년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삼불전·극락전·관음전·삼성각·지장전을 지어 놓고 지금은 백팔계단을 놓고 있는 불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범종각 불사와 요사채 불사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남은 불사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일심으로 하루 하루 쉬지 않고 불사를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의 상좌 정안(正安)스님이 68년도부터 중창기도를 시작한 것이 99년 음력 2월 18일 지장재일에 만일기도 회향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고사 중창중불사 50여년 불사기념 법회와 만일기도 회향 및 다시 천일 지장기도를 큰스님을 모시고 입재코자 하오니 모든 불자님들께서는 다 오셔서 동참하시어 신심이 견고하고 영복 되길하고 속성정각하셔서 평도충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소원 이루어시길 바랍니다.

주지 김도천 합장

1999년 4월 4일 일요일 (음력 2월 18일)

- 오전 7시 30분~10시 관육
- 오전 10시 ~ 12시 권공, 축원, 회향 및 입재
- 오전 12시 ~ 1시 큰스님 법문
- 오후 1시 ~ 3시 마침

※ 천일지장기도입재 영가 1인당 1만원

※ 만일기도회향 7일 용맹지장기도 입재 영가 1인당 3,000원

※ 만일기도회향 7일 용맹특별지장기도 입재

1999년 4월 28일 (음력 3월 13일) 수요일

■방생장소: 동명해수욕장 (동해바다 강원도 정동진역 옆)

- 방생 : 오전 11시 ~ 오후 1시
- 법회 : 오후 1시 ~ 2시 큰스님 법문
- 등명낙가사 참배 - 귀가

※ 회비 1인당 20,000원, 점심 각자 치참

■접수처

- 진산 태고사 (0412) 752-4735 · 대전 관음사 (042) 282-6261
- 금산 고보림실 (0412) 751-0120 · 진산 하성국 (0412) 753-6848
- 서울 수호사 (02) 813-3060 · 부산 조보림실 (051) 516-5506
- 대구 김홍련화 (053) 558-3111

대둔산 태고사 ☎(0412) 752-4735 충남 금산군 진산면 행정리 산29번지